

# 100개국 800만명 방문... 잔치준비 여수는 설렌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엑스포



2012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가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5월 12일이면 여수 신항과 덕동 일원에서 3개월간의 일정으로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된다.

여수엑스포가 개최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2년 유치전에서 중국 상하이에 아깝게 패한 이후 2007년 11월 개최권을 따오기까지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와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움직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고지원 SOC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대회 개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올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여수엑스포 준비상황과 과제를 점검한다.

## 76개국 참가 신청...유치목표 '순항'



◇참가율기 최고=여수엑스포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어느 대회때보다 높다. 현재까지 여수엑스포에 참가하겠다고 통보를 해 온 나라는 모두 76개국이다.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17개국, 미국·파라과이 등 중남미 12개국, 일본·중국·인도 등 아시아 22개국, 이집트·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18개국, 사우디 등 중동 7개국이다. OECD 등 국제기구도 3개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는 같은 등록박람회로 1년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엑스포(1993년)가 12개국,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2008년)가 61개국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전까지 100여 개국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올해 더욱 치밀한 유치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 공정률 43% 연말까지 90% 완료

◇전시관 공사는 순조=현재 박람회장과 도로·철도 등 SOC를 포함한 박람회 사업 전체 공정률은 43%로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90%, 내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박람회장은 전체 규모가 177만㎡이다. 핵심 시설인 전시장은 80만㎡이고 지원시설인 엑스포 타운(53만㎡)과 환승 주차장(44만㎡)으로 구성돼 있다.

박람회장 공정률은 35%로 올해 11월까지 핵심시설은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 공정률에 비해서는 낮지만 지난해 10월 한국관·부채관·국제관 등 모든 전시관이 착공했고 아쿠아리움과 숙박시설인 엑스포타운, 고급 호텔도 속도를 내고 있어 대회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에 있어 순수 박람회장 조성 사업비 2조1000억원(민자 7265억원 포함) 중에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 SOC 예산 2조9149억원 미집행

◇문제는 SOC 확충=박람회장이 아무리 좋게 지어졌다더라도 박람회장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허사다. 전남도와 엑스포조직위는 수화여행단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대회기간동안 8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을 방침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박람회장 접근에 필수적인 SOC 확충이 관건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진행된다면 SOC 시설이 제때 완공될지 미지수다. SOC는 도로·철도·항만 등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0조3231억원(민자 포함)에 달한다. 지금까지 71.7%인 7조4082억원이 SOC 확충에 투입됐지만 올해 1조3059억원과 내년 1조6090억원 등 2조9149억원이 미집행 상태다. 더구나 올해 예산의 경우 요구액(필요액)은 1조7404억원인데 반해 반영된 예산은 75%에 불과하다.

고 이 가운데 국고지원 예산은 77.4%인 9408억원만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철도 복선 및 전철화 사업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라선(익산~순천) 복선 전철화사업 900억원, 순천~여수 복선전철화(476억원) 등이 올해 예산에 전액 반영돼 연말이면 용산~여수간 KTX가 운행될 전망이다.

## 핵심 도로망 비상...2727억 더 필요

가장 심각한 곳은 도로분야다. 경상도쪽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3000억원 요구했지만 500억원이 깎였다. 엑스포 개막 이전에 완공하려면 2727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전주~광양 고속도로 사업비도 446억원이 삭감됐고 목포~광양 고속도로 사업비도 5101억원이 필요한데 2305억원만 반영됐다.

여수까지 들어오더라도 여수시내 핵심 도로망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내는 주차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접근성을 높이려면 여수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까지 2.8km 구간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여수의 관문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석창교차로를 일체 교차로로 개설해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국도 17호선인 석창교차로의 경우 국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터미널~박람회장 구간은 지방도로로 지자체 소관이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SOC 예산이 필요액만큼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있지만 얼마전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난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년 1월까지 여수산단 진입도로와 전주~광양 고속도로 등 핵심 SOC가 완공되도록 예산 지원을 약속한만큼 대회전에는 차질없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호텔 부족...숙박시설 '풍요속 빈곤'

◇고급 숙박시설만 부족=숙박시설은 산술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 전남도는 대회기간동안 하루 평균 4~6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만명을 기준으로 박람회장 주변 1시간 권역에 필요한 숙박시설은 2만7877실이지만 확보된 시설은 4만467실에 이른다. 문제는 모텔·여관·민박·청소년수련원 등 일반시설이 전체의 94%라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들도 호텔·콘도 등 고급시설 선호도가 높아 1만5261실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2351실만 확보된 상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호텔·콘도(2800실), 미분양 아파트(3000실), 한옥 등 체험형 숙박시설 등을 확보해 고급 숙박시설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호텔·콘도의 경우 지난해 7월 대명레저개발의 VIP호텔(282실)과 9월 전남개발공사의 경도 해양관광단지(460실)가 공사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1957실이 대회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열 전남도 여수박람회지원관은 "SOC 확충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SOC도 개막전까지는 무리없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도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만큼 박람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www.topinfra.co.kr

謹賀新年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탑인프라 디벨로퍼

미래를 선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와 다양한 시공경험으로 건축,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와 저탄소 녹색환경,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풍력, 바이오매스(우드펠릿) 등 펠릿 난방기 및 LED 제조 등 환경친화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바른기업으로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기업  
탑인프라가 미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 회사가 하는 일

- 건축/토목/전기공사사업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 주택용 태양광 그린홈 100만호 사업
- 바이오매스(우드펠릿) 러시아 생산공장 운영 및 제품판매
- 우드펠릿 사용, 난방기기 설계 제조 및 보급
- 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광촉매 생산 (코팅재, 보도블럭, 제지, 페인트 등 생산)
- LED 응용제품·제조

태양광 RPS(시범) 사업  
건축물위 200KW급실치발전소

그린홈 100만호 및  
그린빌리지 사업

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광촉매 생산(특허)

바이오매스(우드펠릿)

계절별 고도에 따라  
태양 전지판 수동조절  
효율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경사  
가변형 지체대 특허(경사기변형)  
4개 부문 보유

회사전경  
ISO9001, ISO14001 (환경부문) 인증기업  
녹색환경대실수상(전남일보) (광주은행)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중소기업청)  
기업부설 연구소

LED 응용제품·제조  
저전력, 고효율 인증제품  
- KS, CL, UL 외

TOP 펠릿 난방기  
(TOP Pellet Heating System)  
농가의 소득증대, 저탄소 녹색성장 (우림정책)에 이바지합니다.

TOP 펠릿 난방기란?  
기름값 및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보일러입니다.  
• 고효율 비동작장  
• 화재위험도 없는 안전한 특별합금 기술: 권리 특허(한국GSST) (주)탑인프라는 저질펠릿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건축/토목/태양광발전전문기업 - (주)탑인프라 디벨로퍼

창호 및 구조물전문기업 - (주)탑인프라 솔라

전기공사전문기업 - (주)탑인프라 알트릭

태양광발전소 - (주)탑인프라 팅발전

우드펠릿 난방기 현지법인 - (주)탑인프라 펠릿사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9-51 TEL: 062)574-2088 FAX: 062)574-9088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965 TEL: 062)945-2081 FAX: 062)945-2084